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임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7월 임원회가 열립니다.

**장례** : 박효선 권사님의 어머니 이정옥 성도님이 23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고, 권미숙 권사님의 어머니 이미중 성도님이 24일 별세하셔서 조문 하였습니다.

**신앙실천** :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마음 비우기’ 기도를 자주 해보십시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삼하11:26-12:13a / 시51:1-12	2부	사 57:14-21
예배	엡4:1-16 / 요6:24-35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정영선 홍춘숙 김희우 김애순 김경혜 최숙화 광상준  
 다음 주 식당봉사 : 이소애 오미숙 이영란 이소혜 박유경 김성우 강세기  
 오늘설거지봉사 : 2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3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5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9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정신이 가지런해지고, 손과 발에는 선한 일을 행하려는 기운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파하는 이들과 공감하기보다는 거리두기에 익숙한 사회입니다. 다름을 삶의 또 하나의 방식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악으로 규정하길 즐겨하는 사회입니다. 나눔과 베품의 하나님나라 법칙보다는 승자독식과 적자생존의 정글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주님, 이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고후5:17 ..... 인도자

♣ 교 독 문 ..... 45. 시편103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대표기도 ..... 김정민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313.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 다 함께

♣ 성경봉독 ..... I. 삼하11:1-15 엡3:14-21 요6:1-21 ..... 이용현 선생

II. 빌 4:2-9 ..... 박영신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찬 양 ..... 오직 주만 ..... 찬양대

말 씬 ..... I. 그 마음에 잇대어 ..... 신진식전도사

II. 아름다운 삶을 위한 처방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 함께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인식	김정숙	구재원	김경혜	김금순	김대영	이효심	김명순	이교영
김성우	박유경	김순자	김애순	김영순	김윤수	박상호	김정훈	이진영
김중현	성귀옥	김철수	유영남	김혜영	박명제	서미경	박영희	박예림
박준희	이기분	변재민	이소혜	성지현	송동준	김진경	송인선	심화섭
정영란	안세진	오미숙	오자영	윤미경	윤정덕	구성실	이광섭	김수영
이봉옥	이부곤	이순용	김신실	이유진	이응석	이응경	이정은	이준림
이진영	한양미	임 영	정경례	임영선	임형욱	장원호	박성희	정완수
김재광	정원석	김현영	정현모	정현숙	조순덕	하정석	이명희	허호범
박성실								

### 감사헌금

강인식	김정숙	김경혜	김성욱	진혜경	김재흥	최희영	김태정	김향자
박상욱	이은혜	임명희	임주빈	최현옥	장영숙	장의림	정진호	홍순구
안홍숙	무명7							

### 생일감사헌금

최성애

### 녹색꿈헌금

윤정덕 구성실 무명2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쉽	쉽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시온	권미숙	박미영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 마음으로 읽는 글

음악 감상

만일 전화 통화 후 나의 동료 직원이 여러 경로를 거쳐  
 하고 조치된다면 나도 사표를 준비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장시간에 걸친 전화 통화는 동료 직원의  
 인내심으로 조용히 끝났기 때문이다  
 나는 곧바로 퇴근했지만,  
 동료 직원은 어느 술집으로 다시 출근했을 것이다  
 다음날 술자리에서 동료 직원은 말했다;  
 걸려온 전화기에 가득 찬 고함 소리의  
 틈새로 자신이 너무도 좋아하는 브람스 음악이  
 새어나오고 있었노라고

- 윤병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의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427. 맘 가난한 사람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삶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도록 사십시오.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사십시오.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 함께:	아멘. 그릇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맘 사로잡혀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아름다운 삶의 길을 힘써 걸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b>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b>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녁 집회 / 강의: 이범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기석 목사	최다미 선생 김경연 집사

7	영접위원	하현철 윤성종 주경진 김윤정 김경혜 홍춘숙
	헌금위원	윤석철 정경례

## 유영모 : 신앙같은 노동으로 천명을 기다린다

다석(多夕) 유영모(1890-1981)가 농사로 돌아서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톨스토이였다고 한다. 유영모는 농사짓기를 소원했는데, 사는 방편으로가 아니라 사는 보람에서였다. 그는 경성피혁 상점 일을 볼 때나, 경성제면소를 운영할 때도 마음은 언제나 농촌에 가 있었다. 사람이라면, 적어도 제 먹을거리는 제가 마련해야 한다고 여겼다. 처음 유영모가 귀농을 생각하면서 수첩에 적어 놓은 것은 톨스토이의 ‘생활 십계명’이었다.

1. 밤이나 낮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2. 매일 실외에서 운동한다.
3. 음식을 절제한다.
4. 냉수욕을 한다.
5. 넓고 가벼운 옷을 입는다.
6. 청결에 힘쓴다.
7. 규율에 맞추어 일한다.
8. 밤에는 반드시 폭 잔다.
9. 이웃에 착한 마음을 쓴다.
10. 별 잘 드는 넓은 집에서 산다.

유영모는 간절한 향농심, 귀농심으로 농우를 사모하고 농부를 경애하였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고생하는 동포, 그들 가운데 하느님의 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 구경 한 번 못한 촌뜨기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예수가 섞여 있습니까? 농민 노동자들, 이들은 모두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지는 예수들입니다. 특히 무식한 어머니들은 우리들의 더러움을 대신 지는 성모입니다. 그들이 찢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들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귀농을 반대하던 부친이 돌아가시고 삼 년 뒤에 유영모는 마흔 다섯의 나이에 농촌으로 귀거래했다. 그가 서울에서 출애굽하여 정하고 찾아간 곳은 북한산 진흥왕순수비가 산마루에 있는 비봉산 아래였다. 당시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구기리 150번지. 구기리 골짜기는 인근에 십여 호가 사는 한적한 곳으로, 여기에 임야 다섯 필지를 사서 지냈다. 이때에 얻은 별호가 북한산인, 비봉거사였다. 평지가 없어서 논농사는 짓지 못하고, 자두, 복숭아, 감, 산능균, 앵두 등 과일 나무를 심었다. 고구마, 토마토, 감자, 고추, 무, 배추 등 채소도 가꾸었다. 그 밖에 닭과 토끼, 돼지와 젓소도 키웠다. 이른바 복합 영농인 셈이다. 이렇게 유영모는

톨스토이의 생활 십계를 다 지키게 되었다. ...

유영모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농사꾼뿐이라고 생각했다. 농부는 때를 기다리고 때를 지켜 제 할 일을 마무리한다. 그것이 사명이다. 씨 뿌릴 때 씨를 뿌리고, 거둘 때 거둔다. 그러니 농부들에겐 따로 하느님을 전할 필요도 없다고 믿었다. 이미 그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농사를 지어도 내가 심었으니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 내가 거두었으니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느님과 자연이 돕지 않으면 허사가 되는 게 농사였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기리고, 햇빛과 물과 공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농사는 결국 마음밭을 갈기 위함이라고 믿었다. 농사는 열매와 낱알을 거두고자 함이요, “열매와 낱알을 거둬는 시간을 얻고자 함이다. 시간을 얻음은 학문을 닦기 위함이다. 학문을 닦음은 진리를 깨닫자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자는 것은 참 아버지를 찾아 돌아가자는 것이다. 여기에 까지 이르러야 참 농사다.” 마음밭[心田]을 갈기 위해 농사에 전념하면서 유영모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일할 때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은 면류관보다 아름답고, 손바닥에 박힌 굳은살은 금강석보다 값지다. 명상이 마음의 기도라면, 노동은 몸의 기도다. 피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다. 하루 온 날의 힘씀으로 술에 취한 듯 노곤한 몸으로 저녁의 노을을 등지고 저 높은 곳에 계신 영원한 임 앞에 머리 숙일 때 하루의 삶이 온전히 큰 님 앞에 바쳐진 듯 기쁨이 넘친다. 너도나도 밀레가 그린 ‘만종’의 살아 있는 그림이다. 피곤할 때 드리는 기도에는 잡념이 일지 않는다. 가장 거룩한 기도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는 차서 넘치고 시골은 텅 텅 비어 간다. 예수는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였지만, 지금은 기도하러 빈 시골에 가야 한다. 서로 치이고 밟혀 못 살게 된 도시를 떠나 호연지기 가득 찬 시골로 가서 살아야 한다.”

... 지금도 관상수도자들이나 정주 수도원에서는 기도만큼이나 ‘노동’을 귀하게 여긴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기도가 대지에 뿌리박은 노동을 통해서 보람을 얻도록 요청했다. 굳이 우주심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농업 노동은 하느님의 육신과 접촉하는 거룩한 과업이다.